

코로나 이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신앙약화 현상 두드러져!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의 긴 시간을 끝으로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4차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신교인들은 '성경 묵상과 기도'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코로나19 시기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온라인 예배자의 신앙 약화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만족도(94%)가 현장 예배(95%)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코로나 이후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회 규모가 클수록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넘버즈 146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의 한국교회의 현황과 전망을 통계 데이터라는 창(Window)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좌초되지 않고, 묵묵히 복음을 지키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자로서 새로운 미래의 좌표를 그리는 데 이 데이터가 사용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4차 추적조사1 (개신교인)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 하였다. 금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추적조사에 이은 4차 조사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 한국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개신교인의 신앙인식, 교회 생활, 온라인예배에 대한 태도 등 전반적인 인식과 예배실태를 살펴본 후 그 다음 주에는 목회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표본 규모	총 1,5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추출법 (고령화 가중치 적용*)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15일 ~ 4월 25일 (11일간)
• 조사 주관	예장통합총회 / 기아대책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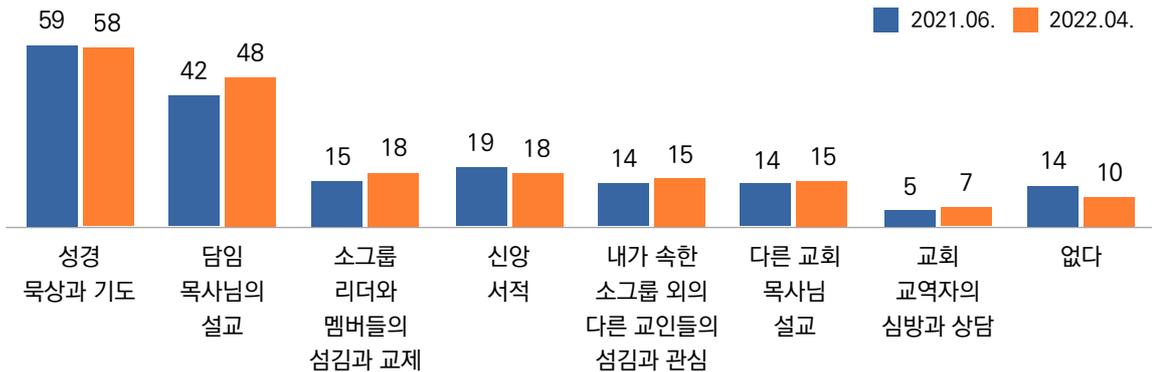
- 1) 2015 인구센서스 기준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 2) 조사 완료 후 2021년 기준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를 토대로 한 종교분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가중치 부여 (2021년 3~11월 전국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실시 결과를 취합한 자료이며, 총 6003 표본의 응답 결과임)

01

코로나19 시기 신앙에 도움받은 것, ‘담임목사님 설교’ 증가!

- ▶ 개신교인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성경 묵상과 기도’(58%)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설교’(48%),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섬김과 교제’(18%) 등을 꼽았다.
- ▶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42%에서 48%로 상승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 시기 신앙에 도움받는 것 (개신교인 전체, %)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02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 현장예배 참석률 전국적으로 57%까지 상승!

- ▶ 이번 조사시점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였는데 지난주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질문하여 전국적인 예배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출석교회 현장예배 드린 비율이 작년 49%에서 올해 57%로 8%p 증가하였다.
- ▶ 반면 출석교회 온라인예배는 작년 31%에서 올해 27%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3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 지난주 주일예배 드린 형태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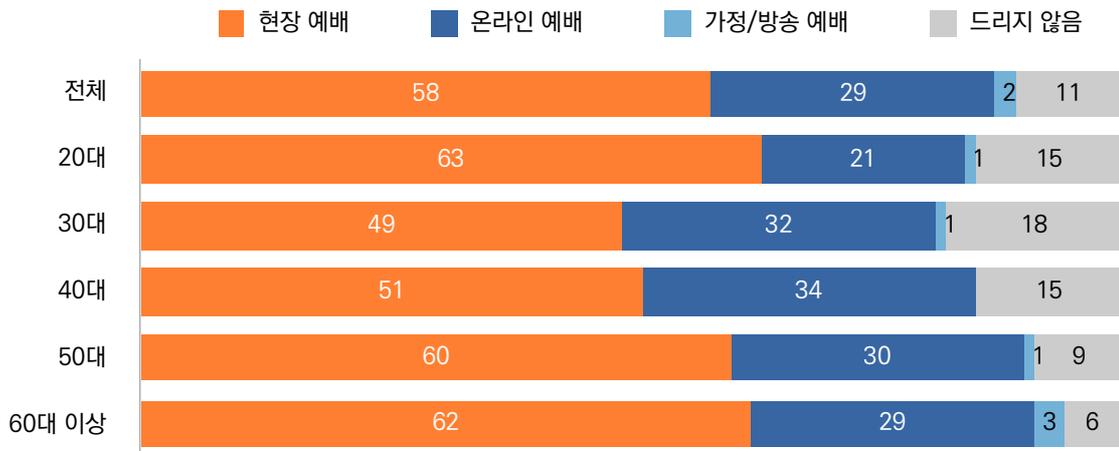
*2020.12 :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 현장예배 참석률, 30-40대가 가장 낮아

- ▶ 연령별 주일 예배 참석유형을 살펴보면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 연령 중에서 현장예배 참석률이 가장 높다. 청년층의 현장예배 참석률이 고령층과 비슷하게 높은 것은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청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 ▶ 연령별 현장예배 참석률은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 안팎의 참석률을 보이는데, 30대는 49%, 40대는 51%로 타 연령층 대비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예배로 빠지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 특히 30대층의 경우 예배 드리지 않은 비율이 18%로 가장 높는데, 앞으로 3040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미래 한국교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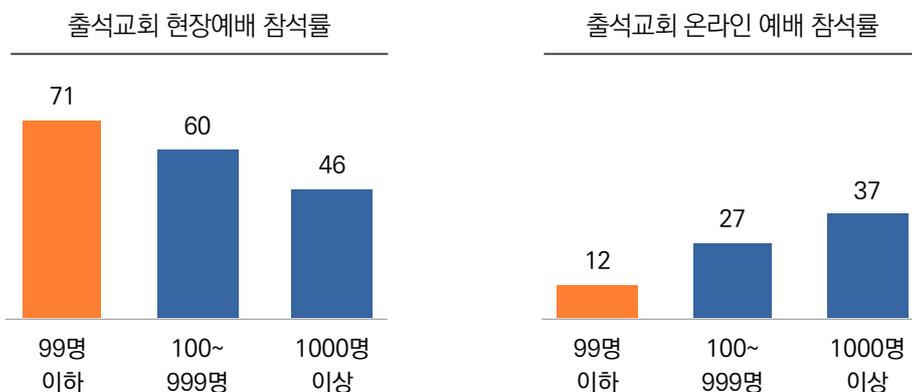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 드린 예배 유형 (교회 출석자, 연령별, %)



◎ 현장예배 참석률, 교회규모가 클수록 낮아

- ▶ 교회 규모별 주일 현장예배 참석률을 살펴보면, '99명 이하 교회'는 71%까지 올라가는 반면, '100-999명 교회'는 60%였다. 반면 '1000명 이상 대형교회'는 46%까지 떨어져 아직 채 절반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대로 출석교회 온라인예배 참석률은 교회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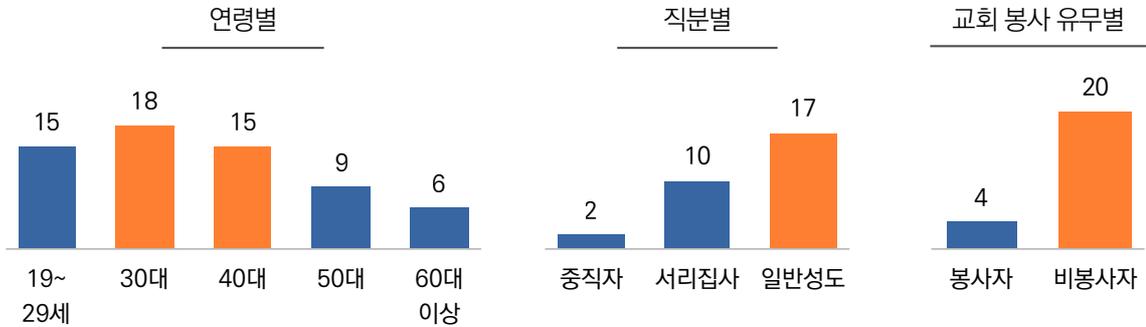
[그림] 교회규모 / 예배유형별 참석률 (%)



◎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자, 49세 이하 젊은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교회 출석자 중 지난주 주일예배에 대해 현장예배든 온라인예배든 아예 드리지 사람을 분석해 보면, 40대 이하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직분별로 일반성도와 교회 비봉사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지난주 주일예배 드리지 않은 자 (교회출석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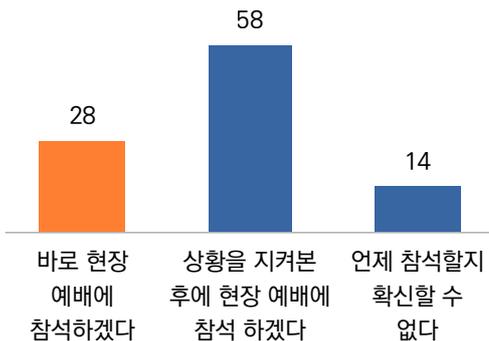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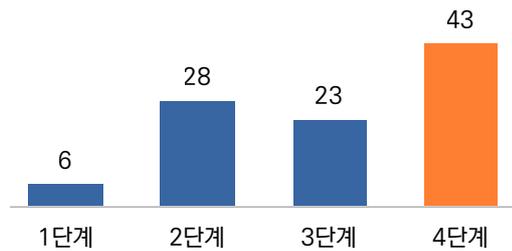
현장예배 미참석자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태도,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 28%에 불과!

- 거리두기 해제 발표(4/15) 직후에 조사한 이번 결과에서 현장예배 미참석자들에게 거리두기 해제 후의 주일예배 참석 의향을 물었다. 그 결과 '바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였고, 나머지 72%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거냐'(58%), '언제 참석할지 확신할 수 없다'(14%)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권면과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그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현장 주일예배 참석 의향 (현장예배 드리지 않은 자, %)



[그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바로 현장 예배 참석하겠다' 비율 (현장예배 드리지 않은자, 신앙 수준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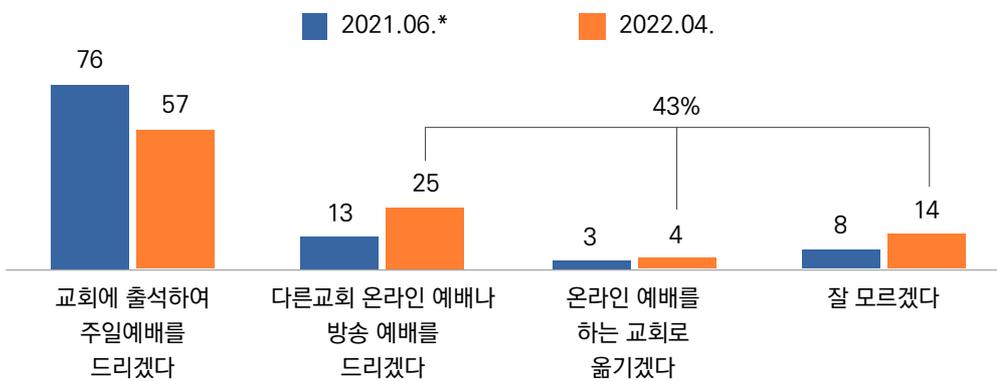


*단계가 높을수록 신앙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임

◎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 중단 시, 온라인 예배자 43%는 '다른 교회 온라인예배 드리겠다 혹은 유보적 태도 보여!'

- ▶ 그렇다면 출석교회에서 현장 예배 독려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질문한 결과,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겠다'는 비율은 57%로 지난해(76%) 대비 19%p 줄었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는 비율은 13%에서 25%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이 온라인 예배와 더욱 친숙해지고 밀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 '다른 교회 온라인예배 또는 방송예배 드리겠다'는 응답(25%) 이외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교회로 옮기겠다'(4%)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14%)는 유보적인 사람들까지 합하면 온라인 예배자 중 온라인 예배 중단 시 현장 예배로 유입되지 않을 비율은 43%에 달한다는 점을 유념해 두고, 추후 온라인 예배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림] 출석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중단 시 태도 (온라인 예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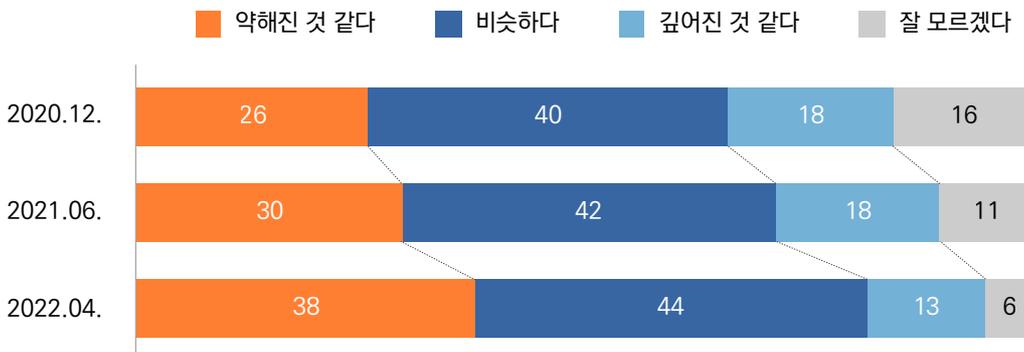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 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04 코로나19 이후, 질적 신앙수준 지속적으로 약화 추세!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앙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4명(38%) 가까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13%에 불과했다.
- ▶ 2020년 12월 조사 이래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늘고 있어 코로나19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개신교인들의 질적 신앙수준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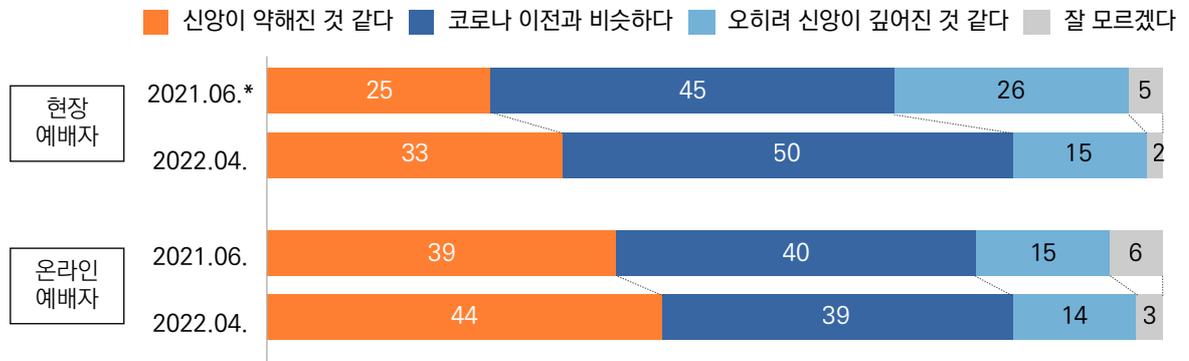
*2020.12. :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보고서(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 온라인 예배자의 신앙 약화 현상, 현장 예배자에 비해 심하다!

- 신앙수준의 변화는 주일예배 유형과 출석교회 교인 수별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주일예배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장 예배자'(33%)에 비해 '온라인 예배자'(44%)에게서 신앙 약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작년 조사 대비 현장예배자, 온라인예배자 모두 신앙 약화 현상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개신교인 전체, 예배유형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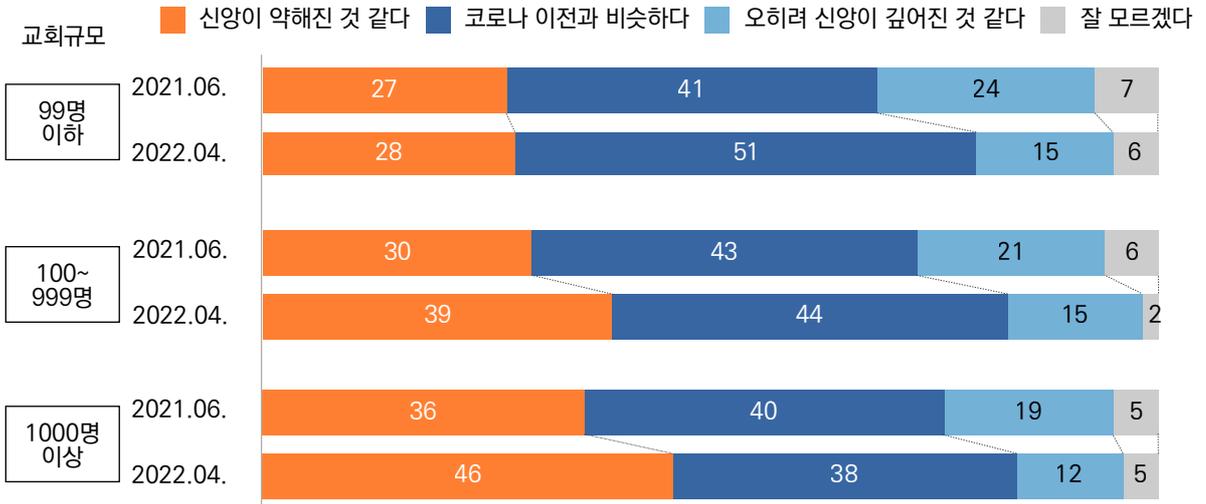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신앙약화 현상 두드러져!

- 출석교회 교인 수별로 보면 '신앙 수준 약화' 비율이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99명 이하'는 28%, '100~999명' 39%, '1000명 이상'은 46%에 달했다. 또, '99명 이하'의 경우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률이 작년 6월 조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1%p)가 없으나, '100~999명'은 +9%p, '1000명 이상'은 +10%p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출석교회 교인 수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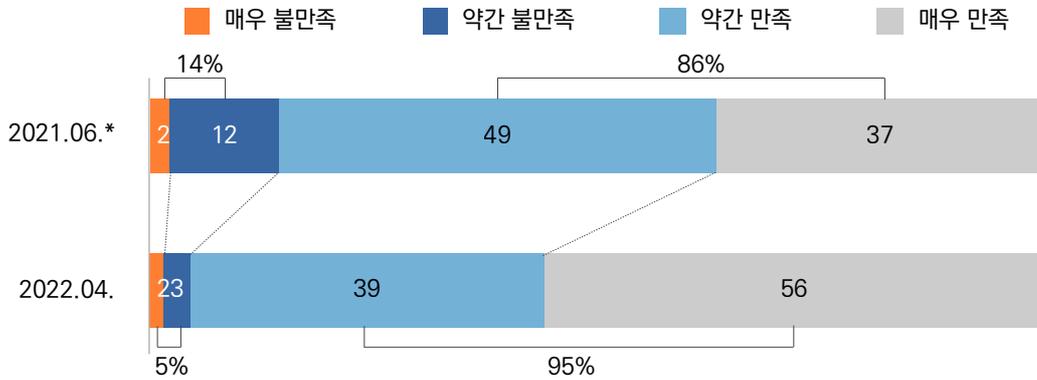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05

주일예배 만족도, 작년 대비 상승!

- ▶ 지난 주일예배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만족(매우+약간)' 95%, '불만족(매우+약간)' 5%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작년 조사때 만족도가 86%였는데 1년 사이 만족도가 9%p나 더 상승했다.

[그림] 지난 주일예배 만족도 (주일예배 참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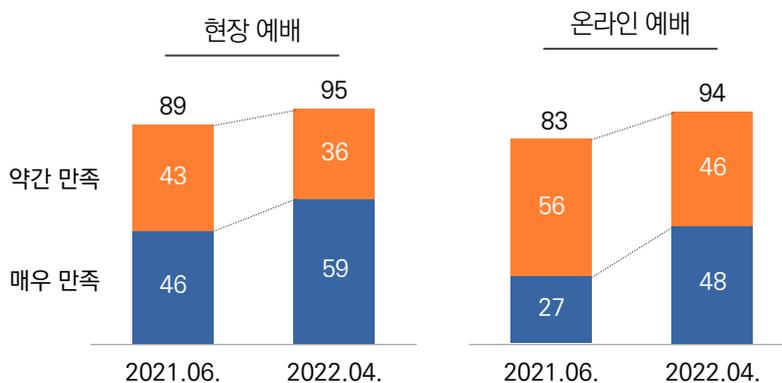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 온라인 예배(94%), 예배 한 형식으로 자리잡나... 현장 예배(95%)와 예배 만족도 비슷!

- ▶ 이번에는 주일예배 유형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장 예배' 95%, '온라인 예배' 94%로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전년* 대비 11%p 상승, 올해 조사에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간 만족도(매우+약간 만족)가 비슷하게 집계됐다.
- ▶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 비율이 증가하고, 개 교회의 노력으로 온라인 예배 수준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 구체적으로 '각 예배 유형별'로 '매우 만족' 비율만 보면 현장 예배 59%, 온라인 예배 48%로 만족의 강도 측면에서는 현장 예배가 높지만, 작년 대비 '매우 만족' 상승폭은 온라인 예배 21%p, 현장 예배 13%p로 온라인 예배의 상승폭이 더 컸다.

[그림] 예배유형별 지난 주일예배 만족도 (4점 척도, 매우+약간 만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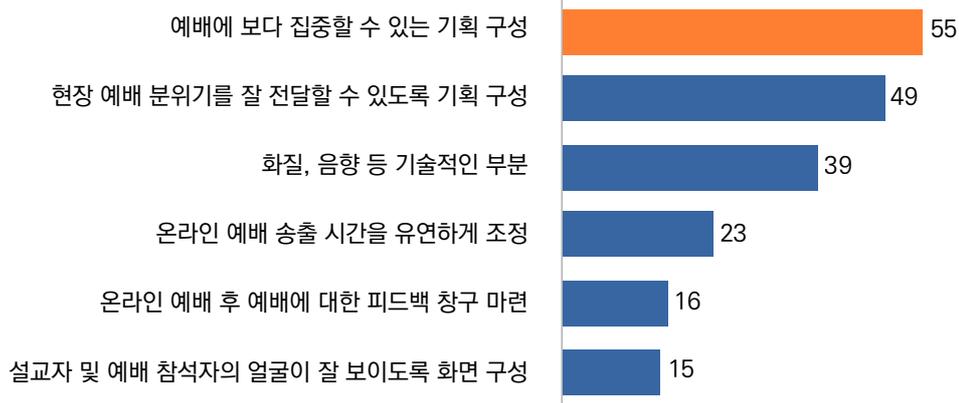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06

온라인 예배 보완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획 구성' 55%!

- ▶ 온라인 예배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묻은 결과, '예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획 구성'이 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장 예배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 구성' 49%, '화질, 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개신교인들은 교회 온라인 예배에서도 '현장 예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교회에 '영상 기획력·기술력 향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온라인 예배 보완점 (개신교인 전체, 1+2순위, %)



◎ '지난 1달간 타교회 온라인예배/설교 들었다' 55%!

- ▶ 교회 출석자에게 지난 1달간 타교회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은 경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절반이 넘는 55%가 '있다'고 응답했다. 있다는 응답은 중직자 63%, 서리집사 53%, 일반성도 52%로 중직자층에서 가장 많았다.
- ▶ 예배/설교들은 빈도는 평균 2.0개였으며, '있다'는 사람 중에는 절반 이상(56%)가 2개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한 달간 타 교회 온라인예배/설교 들은 경험 (교회 출석자, 방송예배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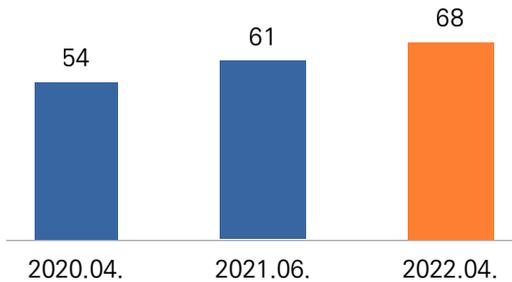


07

가나안성도,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68%!

- 기독교신앙이 있으나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온라인 교회'에 참여할 의향을 묻은 결과, 무려 68%가 참여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54%, 2021년 61%, 2022년 68%로 지속적으로 의향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교회를 이탈한 가나안성도들에게 온라인교회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이다.

[그림] 가나안성도의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 (매우+약간 의향있다, 4점 척도,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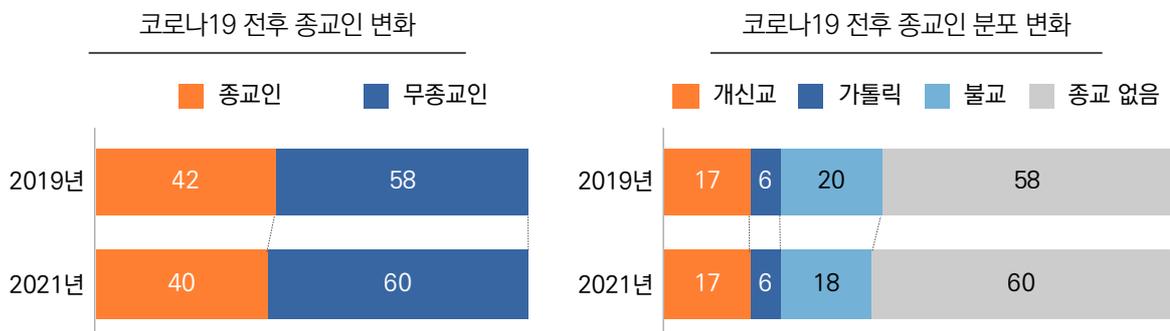
**2021.06. : 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08

한국의 종교인, 코로나 이후 더 줄어들어!

- 코로나19 전후를 거치면서 종교인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다.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현황' 조사 결과(한국갤럽,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인은 2019년 42%에서 2021년 40%로 코로나 이후 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종교인은 2019년 58%에서 2021년 60%로 처음으로 60%대로 진입하여 코로나19 이후 탈종교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종교별로는 코로나19 전후에 불교인은 20% → 18%로 2%p 줄어든 반면, 개신교인은 17% → 17%로 변화가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의 종교인 분포 변화 (코로나19 전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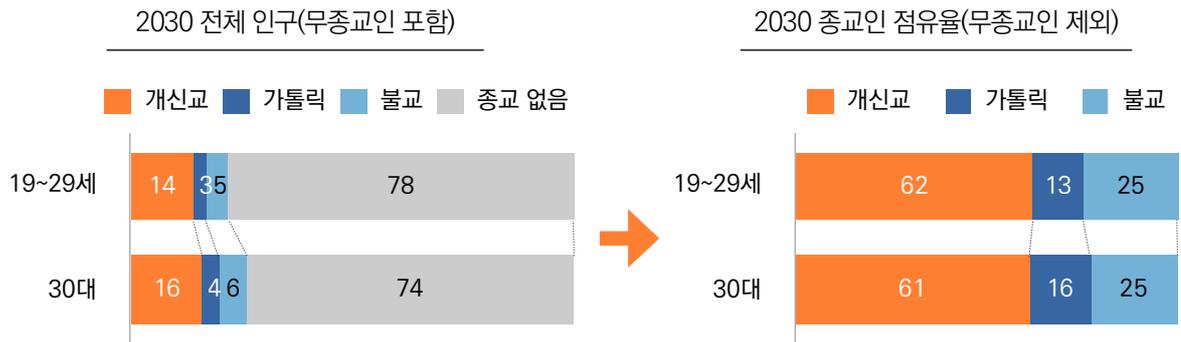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연도별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 대면조사)
 Note) 2021년 자료 : 한국갤럽,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6003명, 대면조사, 2021.01~11.)

◎ 지금 추세로 가면, 다음세대에는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압도적 리딩종교가 돼!

- ▶ 연령별 종교분포를 살펴보면 20-30대 MZ세대의 경우 개신교는 14%~16%인데 반해, 불교는 각각 5%, 6%에 지나지 않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 이를 종교인만을 기준으로 종교 점유율로 보면, 개신교가 20대에서는 62%, 30대에서는 61%를 차지한 반면, 불교는 각각 25%를 차지해, 다음세대로 넘어가면 개신교가 우리사회에서 압도적인 리딩종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이는 앞으로 개신교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을 의미한다.

[그림] 2030 종교 분포 (2021년 기준,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6003명, 대면조사, 2021.01~11.

시사점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있다. 아직도 하루에 감염자가 만 명 이상 나오지만 이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예측한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뉴 노멀(New Normal)이란 용어도 시대의 복귀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나타날 예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코로나19 4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예배 인원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시점 바로 직전에 드린 예배 형태를 질문했을 때,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비율이 57%밖에 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예배는 그 절반인 27%였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바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72%는 '상황을 지켜 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요즘 각 교회는 현장예배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으나 아직도 빈 자리가 많아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장 예배를 가장 드리지 않는 세대는 30와 4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령대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 60%를 넘는데 비해 30대는 49%, 40대는 51%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비율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이다. 30대와 40대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30대와 40대가 직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할 나이이며, 가정에서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모의 육아 및 교육 부담을 크게 짊어질 나이이다. 생업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육체적 피곤함이 커서 주일 예배를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는 이들 자녀가 아직 어려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부담감을 더 크게 느껴 현장 예배를 기피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30대와 40대는 현재 교회의 중추 세대인 50대와 60대의 뒤를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들의 현장예배 참여가 낮아진다면 그만큼 교회로서는 위기를 맞을 수밖

에 없으므로 이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향후 목회에 중요하다. 이들을 교회로 불러 내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자녀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서는 교사들과 자녀들이 손소독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열체크를 계속하거나 자가진단키트를 비치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는 생활 피로에 젖어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같은 연령대의 가족들과 즐겁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30대와 40대 부모를 위한 교회 서비스로 고려할만한 방법이다.

교회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현장 예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예배 중단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출석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비율이 5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43%는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예배 중단이 성도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되 현장 예배를 강화하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또 다른 특징은 성도들이 본인 출석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설교를 듣는 점이다. 지난 1개월간 타 교회 온라인 예배/설교를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였으며 그 가운데 56%는 2개 교회 이상의 온라인 예배/설교를 들었다고 했다. 성도들이 출석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 기획과 설교 준비에 더 전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목회자들이 흔히 '설교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기 목회자에게 실망하여 다른 교회로 떠나거나 몸만 교회에 두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래저래 코로나19로 인하여 목회자가 짊어질 부담이 커졌다.